

이마트24, 프리미엄 PB '아임이리저브' 론칭

편의점 이마트24가 프리미엄 자체브랜드(PB) '아임이리저브'를 론칭했다. '고객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품질과 감성을 담아 일상의 격을 높이는 작은 사치'라는 브랜드 스토리를 담았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편의점에서 프리미엄 상품을 찾는 고객 증가에 착안했다. 첫 상품으로 가열하지 않고 과즙만을 담은 칙즙수소를 선보였다. 제주 감귤과 케일·사과 2종으로 구성했다.



효성·린데, 세계 최대 액화수소공장 착공

“지속적 수소 기술투자로 탄소중립 이끌 것”

(조현준 효성 회장)

연간 1만3000톤 규모 플랜트 설립
2023년 5월부터 본격 가동 예정
전국 대형 액화수소충전소 건립도
R&D 통해 그린수소 생산라인 구축



21일 울산 효성화학 용연공장 부지에서 열린 '효성·린데 수소 사업 비전 선포 및 액화수소플랜트 기공식'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사진). 효성·린데 액화수소플랜트 기공식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공식 터치 버튼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안수일 울산시의회 부의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 문제두 H2KOREA 회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효성

국내 수소충전시스템 시장점유율 1위 효성중공업과 글로벌 가스 및 화학 전문 기업인 린데(Linde)가 21일 울산시 효성화학의 용연공장 부지에서 수소 사업 비전 선포 및 액화수소플랜트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조현상 효성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효성과 린데의 생산 합작법인인 린데 수소에너지는 효성화학의 용연공장 부지에 연간 1만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완공해 2023년 5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조 회장 “수소 패러다임 전환 이끌 것”

효성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처럼 액화수소 보급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2023년부터 수소를 활용한 트럭, 기차,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이동수단)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효성중공업은 이와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액화수소 생산 능력을 3만9000톤

까지 늘리기 위해 5년 간 1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판매 합작법인인 효성하이드로젠(현 액화수소 플랜트 완공 시점에 맞춰 액화수소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울산시에 국내 제1호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국 30여 곳에 대형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방침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수소에너지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에너지혁명의 근간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소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루·그린수소 및 CO2 저감 기술 개발

효성은 린데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2024년까지 린데의 크라이오펌프 테크놀로지(Cryo Pump Technology, 초저온 진공펌프)를 적용한 액화수소 충전 기술 및 설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R&D 투자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블루수소 및 그린수소 추출 기술을 개발하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기술을 개발해, 국내 CO2 배출량의 10%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감 기술 개발과 실증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효성과 린데는 울산시와 대형 상용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효성은 지난 2008년 경기도 화성의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 국내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했으며 현재까지 국회, 세종정부청사 등 전국 총 18곳에 수소충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시장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효성첨단소재가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수소차 연료탱크의 핵심소재로 쓰이는 탄소섬유 생산량을 연산 2만4000톤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수소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액화수소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2.7도로 냉각해 액화한 것으로,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1/800 수준에 불과해 저장과 운송이 쉽다. 액화수소를 이용해 충전시 수소를 재충전하는 리커버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시간당 충전 용량이 기체 충전소 대비 3배 이상이다. 버스, 트럭 등 대형 수소 자동차 시장은 물론 에어택시, 드론, 선박, 지게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12시간 저온숙성…식감+육즙 끌어올려
CJ제일제당, ‘더건강한 닭가슴살’ 출시

모델 박미선이 소개하는 CJ제일제당 'The 더건강한 닭가슴살'.

사진제공 |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40년 육가공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닭가슴살 시장에 진출했다.

최근 급성장하는 냉장 닭가슴살 수요에 발맞춘 것이다. 낱소코리아 기준 국내 냉장 닭가슴살 시장은 지난해 530억 원 규모로, 최근 3년 연

평균 약 50%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신상품은 ‘The 더건강한 닭가슴살’이다. 직화통살구이, 직화스테이크, 소시지, 꼬치 등 4종으로 구성했다. 엄선한 국내산 닭을 12시간 저온 숙성해 닭 비린내를 잡고 식감과 육즙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35일 이상 보관 가능한 냉장 제품으로 전자레인지 조리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7월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동물복지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진숙한 이미지의 방송인 박미선을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 닭가슴살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닭가슴살 시장의 인기와 함께 타 식품업체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다. 매일유업 상하농원은 ‘닭가슴살 프랑크’를 내놓았다. 무항생제 닭가슴살로 제조했으며 풍부한 식감과 진한 육즙이 특징이다. 밀키트 업체 프레시지는 닭가슴살 전문 브랜드 허닭과 손잡고 간편식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LP푸드는 ‘넛지헬스케어’와 7월 ‘닭가슴살 큐브’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프롬바이오, 창립 15주년 대규모 프로모션 실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프롬바이오(대표 심태진)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27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626 생일 전야제 릴레이 윈데이 특가 이벤트’(사진)는 5일간 매일 다른 제품을 최대 63%까지 할

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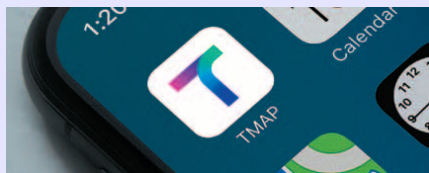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라이트, 6년정성 더진한 홍삼 스틱,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눈건강엔 빌베리 플러스 제품 순으로 진행한다. ‘1주일 만원 특가 행사’는 인기 상품을 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다. 최대 87%의 할인율 제공하며 활력건강엔 멀티비타민, 디랩 헬스핏 와일드망고 다이어트 컷, 장건강엔 더착한 유산균 등을 내놓는다. 창립기념일인 26일에는 ‘대표 상품 1+1’ 행사를 실시한다.

농심, 라면 재포장 방식 변경…포장지 사용량 ↓



농심이 라면 비닐 재포장 방식을 변경해 포장지 사용량을 줄인다. 6월 말 생산하는 생생우동 4개 묶음 제품 포장에 밴드로 감싸는 방식(사진)으로 변경한다. 포장 간소화를 통해

연간 약 10톤의 플라스틱 필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명과 바코드 등 필수 정보는 밴드에 인쇄하고 하나씩 분리하기 쉽게 절취선을 삽입하는 등 소비자 편의도 고려했다. 회사 측은 “물류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 시설 안정화를 추진해 향후 다른 제품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T맵 3000만 명이 쓴다
이달 말 ‘T맵 안심대리’ 추가

티맵모빌리티는 내비게이션, 주차, 대중교통 등 ‘T맵’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3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 ‘네이트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에서 독립한 이후 신규고객 유입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티맵모빌리티 측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운전면허소지자가 3319만 명임을 감안하면 운전자 10명 중 9명이 ‘T맵 생태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T맵은 28일 신규 BI를 적용한다. 또 ‘티맵 안심대리’ 메뉴도 이달 말 추가한다. 하반기에도 전기차 특화 기능을 비롯해 티맵 주차, 통합 키보드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T맵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로봇청소기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있다. LG전자의 ‘코드제로 R9 오브제컬렉션’(왼쪽)과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제트 붓 AI’.

사진제공 | LG전자·삼성전자

“LG vs 삼성, 로봇청소기 AI기능 더 똑똑해졌네”

LG 코드제로, 장애물 인지 정확도 UP
삼성 제트 붓 AI, 펫 케어 서비스까지

로봇청소기가 더 똑똑해진다.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기술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진 결과다.

LG전자는 21일 ‘코드제로 R9 오브제컬렉션’을 출시했다.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70만장 수준인 기존 제품보다 4배 늘어난 약 300만 장의 사물 이미지를 학습한 딥러닝 기술로 실내 공간과 장애물을 더 정확하게 인지한다. 중앙처리장치(CPU) 성능도 향상돼 기존 모델인 ‘코드제로 썬규 R9 보이스’보다 연산속도가 약 1.8배 빨라졌다.

편리한 기능도 갖췄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LG 썬규’에 로봇청소기를 연결해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AI 플랫폼인 클로바와 연결하면 음성으로도 로봇청소기를 제어할 수 있다. 휴류와 휴가드 기능도 있다. 휴류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집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원격으로 청소기를 제어할 수 있다.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유용하다. 휴가드는 청소기가 집안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사진을 촬영해 사용자에게 보내 집을 비웠을 때 방법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품 가격은 129만원이다.

삼성전자도 앞서 4월 ‘비스포크 제트 붓 AI’를 선보였다. 딥러닝으로 100만 장 이

상의 이미지를 사전 학습해 높은 수준의 사물 인식이 가능하다. 청소를 마치면 도킹 스테이션인 ‘청정스테이션’으로 복귀해 충전과 함께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우는 기능도 갖췄다.

스마트싱스 앱에 새롭게 론칭한 ‘펫케어’ 서비스를 사용하면 외출 시 홀로 남은 반려동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심하게 짖거나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 이상 징후나 행동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반려동물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로봇청소기 본체에 탑재된 스피커로 재생해주는 기능도 있다. 제품 가격은 159만원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lthuki@donga.com